

사천왕사 초석의 장식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ecoration of Stone Base at Sachuwang-sa Temple

김상태* / Kim, Sang-Tae

Abstract

In the 7th century, Sachunwang-sa temple had two extra building-sites behind the Main hall. These two building-sites were found to be in peculiar form different from any another existing stone bases. The stone bases of northern part of these building-sites were decorated to molding as the protruding corners of eaves, which was pierced into a circular hole, and was carved into a form of Gomeck-ii(the stone bases for supporting the wall). The northern building of sachunwang-sa temple was found to be used as the altar following munduru(文豆婁) method, through the observations of the archives of Samkukyusa(三國遺事) and the Abhiseka stura(skt. 灌頂經). The molding as the protruding corners of eaves of stone bases was shaped as the roof of a building and the carving of Gomeck-ii gives a proof of the existence of the wall between columns in the altar. The hole of the stone bases protected the wooden cylinder of munduru from the exterior world.

The author concludes, through this research, that the altar of Sachunwang-sa temple was used for the religious service during the war for worship and protecting from the enemies. Also he concludes that these buildings must have been in wooden pagodas constructed upon a square plan, that is with both front and side width equal, having a quite small scaled and low floored building with its first floor closed on all sides, being different from the usual form.

키워드 : 초석, 석재장식, 원공, 제단, 쇠시리, 사천왕사, 문두루, 관정경

Keywords : Stone Base, Decoration of Stone, Circular hole, Altar, Molding, Sachunwang-sa Temple, Munduru, The Abhiseka stura

1. 서론

1.1. 연구의 목적 및 의의

고대 신라의 호국사찰을 대표하는 사천왕사는 7세기 혼란한 통일전쟁시기에 당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기 위한 사찰로 지어졌다. 사천왕사는 통일이전 삼국의 1탑식 사찰배치와 상이한 2탑식 사찰배치를 최초로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사찰이다. 사천왕사에 대한 연구는 건축사와 미술사의 여러 학자들이 연구를 거듭하여 사천왕사의 교리적 배치개념을 밝혔다.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발굴조사를 통하여 새로운 유구가 발견되고 이에 따른 이전과 다른 배치형태가 서서히 밝혀지고 있다. 그러나 삼국시대 혹은 그 이후의 어느 건물지와 건축유구에서 발견할 수 없는 사천왕사 초석에 대한 연구는 명확하게 연구되어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다만 초석의 용도가 제사를 위한 시설이라는 것과 그 시기가 사천왕사 초창 때의 건축물이 아니라는 추정정도가 연구 되어 있을 뿐이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 전통건축에서 보여 지는 초석 중 유일하게 다른 특이한 장식과 형태인 사천왕사 초석의 장식 연구를 통하여 사천왕사의 배치특성과 초석의 기능을 밝히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사천왕사 초석의 장식을 연구함으로써 초석이 가지는 주기능인 기둥의 받침대로서의 역할 이외에 장식을 통하여 사찰이 가지고 있는 성격을 규명하는 동시에, 고대 삼국시대 석재의 조각 장식흐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연구의 범위에 있어, 그 시기는 7세기로 사천왕사를 비롯한 삼국의 사찰과 통일신라시기의 사찰을 그 대상 범위로 한다. 또한 초석의 장식이 활발해진 8세기의 사찰도 그 분석대상으로 한다. 연구의 방법은 우선 초석의 개념과 사천왕사의 초석의 현황을 기초조사로 연구한 후, 사천왕사에 대한 삼국사기, 삼국유사, 그리고 불교경전 등의 문헌조사와 함께, 사찰의 배치개념, 추정 제단지 초석에 나타난 장식과 원공에 대한 연구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사천왕사 추정 제단지 초석

* 정희원, Research Scholar of the Center for Korean Studies at UCL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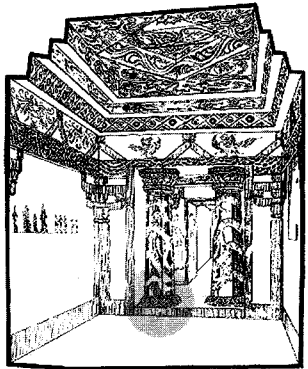
장식의 의미를 도출한다.

2. 초석의 개념과 사천왕사

2.1. 초석의 분류와 장식

(1) 초석의 기능과 분류

초석은 주초라고도 하는데, 목조 혹은 석조건축에 있어 기둥의 하중을 받아 기단 혹은 기초로 전달하기 위한 부재이다. 그리고 초석은 습기나 벌레에 약한 나무 기둥을 보호하기 위한 기능도 가지고 있다. 초석의 분류는 크게 자연(막돌)초석



<그림 1> 고구려 벽화고분인 쌍영총의 초석 표현

과 인조(다듬은 돌)초석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¹⁾ 이 중 인조초석은 그 형태에 따라, 원형초석, 팔각초석, 방형초석으로 나눌 수 있다. 인조초석에는 궁궐이나 사찰 등 대규모 건축에 정치적 사상이나 종교개념을 표현하는 조각장식을 하는 경우도 있다. 초석의 기원은 선사시대의 수혈주거에서부터 볼 수 있으며, 고대의 초석은 고구려 벽화고분이나 고대 궁궐지 및 사찰지, 그리고 주거지 등의 발굴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표 1> 초석의 형태에 따른 분류

자연초석	인조초석		
	원형	팔각	방형

(2) 초석의 장식

초석의 장식은 주로 궁궐과 사찰 등에서 나타난다. 고대건축에서는 특히 사찰에서 장식이 많이 보이고 있는데, 주로 8세기 중엽이 지나서 나타난다. 불교장식에 많이 보이고 있는 연꽃잎 장식이 많이 보이고 있으며, 십이지(十二支)상등의 신성시되는 동물들이 조각되어진다. 석조건축에서의 조각장식은 탑에서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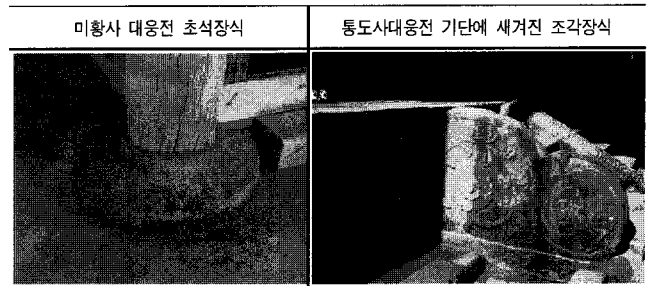
<그림 2> 조각으로 표현된 주악과 건축, 백장암삼층석탑(8C 중엽)

로 나타나는데, 목조탑에서 석조탑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불국토의 건축모습 조각과 부처, 주악, 사천왕 그리고 인왕의 인물조

1) 박연곤, 한국건축사 강론, 문운당, 1998, p.1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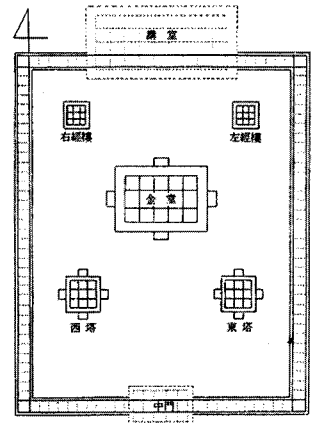
각 등으로 표현하였다. 이러한 조각표현은 다른 석조물에도 영향을 주어 기단, 초석, 기둥, 지붕의 부재에 조각장식이 발달하게 된다. 통일신라의 초석에는 원형과 방형의 주좌를 사용하였으며, 정교하게 돌을 새긴 쇠시리(몰딩)가 잘 남아 있다. 초석과 초석사이에는 벽체를 지지하기 위해 석재를 길게 연결한 고맥이돌이 있는데, 이곳에도 쇠시리장식을 새겼다.²⁾

<표 2> 초석과 기단에 새긴 조각장식 사례



2.2. 사천왕사의 초석

사천왕사의 배치구성은 크게 금당지, 동·서탑지, 북쪽의 추정 동·서제단지로 나누어져 있다. 현재 발굴 중에 있는 사천왕사는 7세기 통일전후기의 사찰건축 배치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례로 최초의 밀교사원임과 동시에 신라 3대 호국사찰 중 하나이며, 신라사찰의 특성인 2탑식사찰의 효시이다. 사천왕사에 대한



<그림 3> 사천왕사 추정 배치도 1929년, 滕島亥治郎

조사는 주로 일제시대인 1920년대에 이루어졌는데, 이때 조사에 의하여 현재의 사찰배치도가 완성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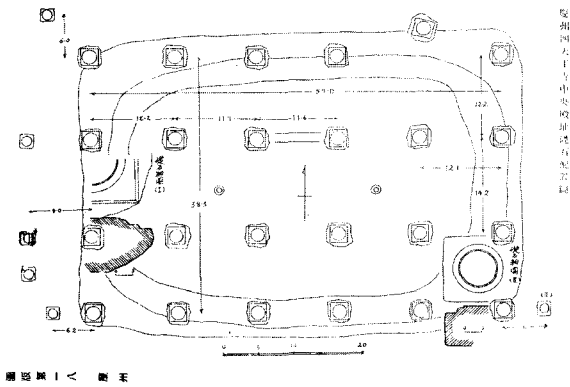
첫 번째 조사는 대정(大正)11년 즉 1922년 조선총독부에 의하여 조사된 『고적조사보고(古蹟調査報告)』³⁾로부터 시작되었다. 이때 조사된 내용은 사천왕사의 문헌 및 기초조사와 금당지, 탑지, 그리고 북쪽의 건물지를 실측하였다. 이때 조사에 의해 사천왕상이 새겨진 녹유귀관와(그림 8)가 발견되었다.

2차 조사는 1929년 경성공전(京城工專) 교수인 건축역사가 滕島亥治郎박사가 실측 및 현황조사⁴⁾를 하여 <그림 3>의 추정배치도를 작성하였다. 이후의 조사는 현재 진행 중인 발굴조사로 금당좌우에 익랑이 발견되었고, 목탑기단의 건축구조를 밝히고 있는 과정이다.

2) 김동욱, 한국건축의 역사, 기문당, 1997, pp.70-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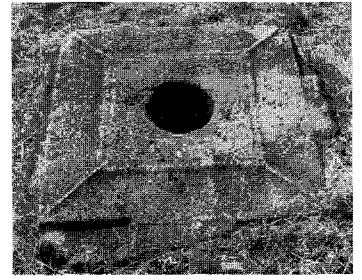
3) 朝鮮總督府, 大正十一年度古蹟調査報告, 京都 株式會社 似玉堂, 大正14年(1925), pp.15~23

4) 滕島亥治郎, 朝鮮建築史論, 경인문화사, 1973, pp.46-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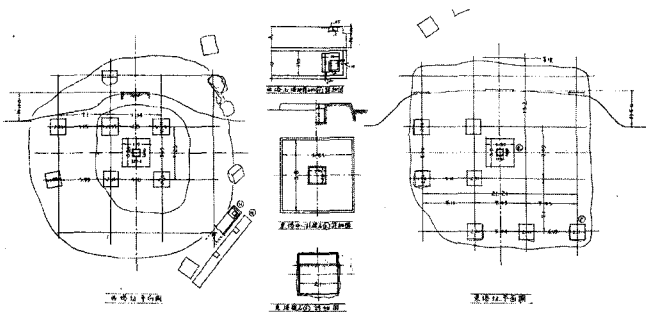
<그림 4> 사천왕사지 중앙전지(금당지) 실측도
- 1922년 조선총독부

<그림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추정 제단지의 초석은 장방형의 인조초석으로 정방형의 주좌(柱座)가 있으며, 초석 사유모서리에서 주좌 모서리에 각각 4방향으로 처마마루의 쇠시리가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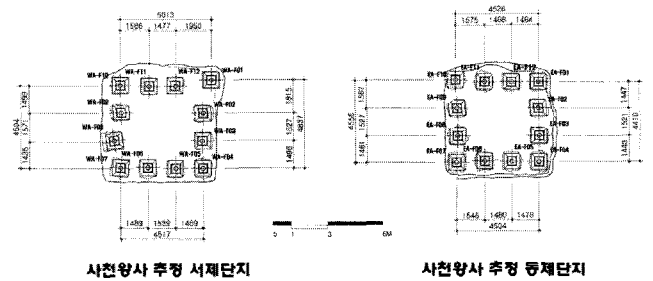


<그림 6> 사천왕사 추정 동제단지 초석 현황

주좌 안에는 사천왕사의 다른 건물지에서 보이는 쇠시리장식이 되어 있으며, 고맥이 흔적이 보이고 있다. 추정 제단지는 동쪽과 서쪽 양쪽에 배치되어 있으며, 각 위치에 12기의 초석이 가장자리를 둘러싸고 있다.



<그림 5> 사천왕사 동탑지 및 서탑지 실측도
- 1929년 실측 藤島玄治郎



<그림 7> 사천왕사 추정 제단지 실측도면
- 2004년 연구자 실측

금당지와 탑지의 초석은 황룡사와 분황사, 그리고 감은사에서 보이고 있는 신라시대의 초석의 모습과 다를 바 없으며, 초석에서 보이고 있는 쇠시리와 고맥이들의 모습은 통일신라시대 초석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금당 북쪽에 위치한 동·서의 추정제단지는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존재하는 건물지로 처음 조사될 1922년에는 탑지로, 2차 조사한 1929년에는 경루지로, 이후 여러 연구자에 의해 현재는 종루와 경루로 알려져 있다. 건물지의 명칭이 자주 바뀔 정도로 이 건물지는 매우 독특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3. 사천왕사의 배치개념과 초석원공

3.1. 사천왕사의 배치개념

(1) 사천왕사의 문헌고찰

삼국유사에서의 사천왕사에 대한 기록은 모두 5차례에 걸쳐 나타난다. 선덕왕에서부터 경덕왕에 이르기 까지 약 150년에 걸쳐 그 기사가 나타난다. 삼국유사는 불교관련 역사서로 건축적 기술보다는 역사적 현상과 인물에 대하여 주로 기술하였다. 그러나 다른 사찰과는 다르게 사천왕사의 경우 문무왕조에 임시로 지은 사천왕사의 건립순서와 기법을 소개한 기사가 있어 그 건축적 표현을 알 수 있다. 다음은 삼국유사에 나온 사천왕사에 대한 기사로 건립의 계기와 건립순서에 관한 기사이다.

… <義相師>西學入<唐>, 來見<仁問>, <仁問>以事諭之, <相>乃東還上聞, 王甚憚之, 會群臣問防禦策. 角干<金天尊>曰: 「近有<明朗法師>入龍宮, 傳秘法以來, 請詔問之.」 <朗奏>曰: 「<狼山>之南有<神遊林>, 創<四天王寺>於其地, 開設道場則可矣.」 時有<貞州>使走報曰: 「<唐>兵無數至我境, 廻槩海上.」 王召<明朗>曰: 「事已逼至如何?」 <朗>曰: 「以彩布假構矣.」 王以

<표 3> 사천왕사 금당지와 탑지의 초석

금당지 초석	동탑지 심초석
원형주좌위에 쇠시리, 고맥이	방형의 초석, 방형의 사리공

5)그림에서의 고맥이 흔적은 동쪽과 남쪽에 나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상기의 초석이 모서리초석임을 알 수 있다.

彩帛營寺, 草構五方神像, 以瑜珈明僧十二員, <明朗>爲上首, 作<文豆婁>秘密之法. 時, <唐>·<羅>兵未交接, 風濤怒起, <唐>舡皆沒於水. 後改册寺, 名<四天王寺>, 至今不墜壇席.(《國史》大改册在<調露>元年己卯.) …

『삼국유사(三國遺事)』 권2 문호왕법민조(文虎王法敏條)⁶⁾

이러한 삼국유사 문무왕조의 기술은 사천왕사의 건립배경과 건립순서가 명확하게 나타나 있는데, 밀교승인 명랑법사가 절을 세울 때 문두루라는 비법을 사용하였으며 그 방법을 통하여 배치개념을 유추할 수 있다.

또한 삼국사기에서 사천왕사는 모두 4차례에 걸친 기사를 보이고 있다. 건립연대와 각종 사건 및 성전(成典)으로서의 사천왕사를 소개할 뿐이지만, 아래의 기사를 통하여 보면 사천왕사를 성전(成典)으로 하여 국찰로서의 중요성을 열거하였다.

… 四天王寺成典 景德王改爲監四天王寺府 惠恭王復故 衿荷臣一人 景德王改爲監令 惠恭王復稱衿荷臣 哀莊王又改爲令 位自大阿漚至角干爲之上堂一人 景德王改爲卿 惠恭王復稱上堂 哀莊王又改爲卿 位自奈麻至阿漚爲之 赤位一人 景德王改爲監 惠恭王復稱赤位 靑位二人 景德王改爲主簿 惠恭王復稱靑位 哀莊王改爲大舍 省一人 位自舍知至奈麻爲之 史二人…

『三國史記』 卷 第三十八 雜志 第七 職官 上 四天王寺成典⁷⁾

<표 4> 삼국사기에 기술된 사천왕사관련 기사

본문목차	시기	기사내용
권제7 신라본기7 문무왕 하	문무왕19년	8월 남산에 사천왕사의 증축이 이루어졌다.
권제12 신라본기12 경명왕립 휘승영	경명왕 3년	오방신이 나타났고, 벽화의 사자가 울며, 개가 짖는다.
권제38 잡지 제7 직관 상	경덕왕 이후	사천왕사를 성전으로 하여 사천왕사부를 두었다

(2) 관정경에 의한 사천왕사의 배치개념

사천왕사에서 행한 명랑법사의 주술은 문두루(文豆婁)법이라 하는 신인기법이다. 문두루에 대한 내용은 관정경(灌頂經)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삼국유사의 사천왕사에서 행한 주술적 기법에 대하여 보면 “...『以彩帛假構矣.』王以彩帛營寺, 草構

6) 이 글을 요약하여 보면, 670년 의상법사를 통한 당의 공격에 문무왕은 명랑법사에게 비법을 요청하여 남산 남쪽 선덕여왕의 무덤 근처에 사천왕사를 가설(假設)하고 문두루법을 행하여 당의 군사를 풍랑으로 서해에서 물리치게 되었고, 후에 이 절을 제대로 지어 만든 것이 현재의 사천왕사이다, 이때가 조로(調露) 원년(元年) 기묘(己卯)(679)의 일이라고 했다.

7) 경덕왕때 부터 각 사찰별로 건물의 수리나 행정적인 업무를 주관하는 관서를 두었는데, 이는 사천왕사를 비롯하여 봉성사, 감은사, 봉덕사, 봉은사, 영흥사 등으로 사찰 성전의 관직은 예작부와 같은 제1위의 관 등으로 두어 이들 사찰의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다. 김동욱, 한국건축의 역사, 기문당, 1997, p.72

五方神像, 以瑜珈明僧十二員, <明朗>爲上首, 作<文豆婁>秘密之法. …중략…, 名<四天王寺>, 至今不墜壇席.”라고 기술되어 있다.⁸⁾

상기의 기사에서 나타난 문두루법에 관한 경전으로는 동진시대(317~420) 인도승인 백시리밀다라(帛尸梨蜜多羅)가 해석한 『불설관정복마봉인대신주경(佛說灌頂伏魔封印大神呪經)』이 있다. 이 경전을 일반적으로 관정경이라고 하는데, 第7經을 보면 문두루에 대한 의미와 작법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다. 다음은 관정경의 문두루에 대한 원문이다.

… 佛告天帝釋. 是爲五方神王名字. 若後末世四輩弟子危厄之日. 取上五方神王名字及其眷屬. 寫著員木之上. 名爲文頭婁法. 其義如是汝宣行之.

天帝釋言員木文頭婁縱廣幾許. 佛言縱廣七七分. 天帝釋言何木最勝. 佛言金銀珍寶最爲上者. 次梅檀木種種雜香. 以此爲文頭婁形. 若有疾病危難恐怖邪鬼. 往來中傷燒人者. 當如前法存思三想. 及五方之神形色相類. 使一一分明如對目前. 如人照鏡表裏盡見. 如此成就無餘分散專心一意. 病者除愈恐者安隱. 邪鬼惡神無不辟除(胡言文頭婁者晉言神印也)此印所向之處. 無不致福卻惡前諸善. …

상기의 본문에서는 부처님이 천제석에게 오방신앙의 이름과 함께 문두루의 정의, 목적, 정확한 규모⁹⁾와 재료, 그리고 제사를 지낼 때의 배치를 묘사하고 있다.¹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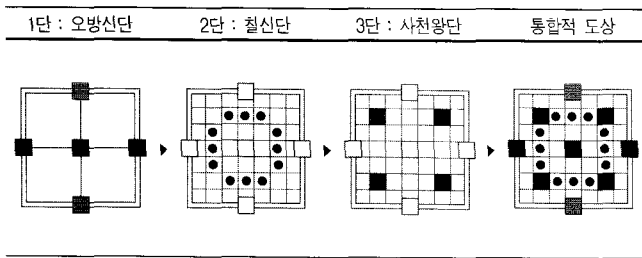
또한 관정경에서는 4단계의 문두루의 수법에 대하여 언급하였는데, 그 수법의 내용은 제1단: 오방신단(五方神段)에서 신인(神印)을 통하여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장애를 제거하고, 제2단: 칠신단(七神段)에서 수행자와 도량을 정화, 제3단: 사천왕단(四天王段)에서 도량을 걸인하며, 제4단: 칠불단(七佛段)에서 부처님의 가피로 정법의 도로 들어간다고 서술되어 있다. 사천왕사의 문두루는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방어하고 또한 공격하여 물리치는 성격이므로 제1단의 오방신으로 하여금 적을 퇴치하고

8) 이 본문을 해석하여 보면 “여러 가지 빛의 비단으로 절을 가설(假設)하면 될 것입니다.” 이에 채색 비단으로 임시로 절을 만들고 풀[草]로 오방(五方)의 신상(神像)을 만들었다. 그리고 유가(瑜伽)의 명승(明僧) 열두 명으로 하여금 명랑을 우두머리로 하여 문두루(文豆婁)의 비밀한 법(法)을 쓰게 했다. …중략… 그 후에 절을 고쳐 짓고 사천왕사(四天王寺)라 하여 지금까지 단석(壇席)이 없어지지 않았다.”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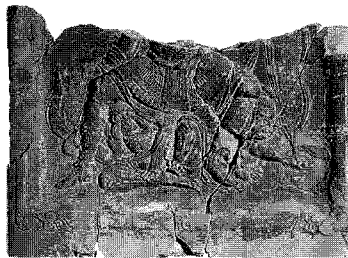
9) 여기에서 원목 문두루의 크기에 대하여 이견(異見)이 있다. 이는 본 연구 3.3절의 문두루와 원공에서 자세히 다루고자 한다.

10) 원문을 요약하여 보면, 정의에 대한 내용은 “오방신앙의 명자(이름)와 그 권속들을 취하여 원목(員木: 둥근 나무) 위에 베껴 놓고 문두루법(文頭婁法)이라고 하라.” 라 하여 나무에 오방신의 이름을 적은 것임을 알 수 있다. 목적은 전쟁, 병, 귀신이 괴롭힐 때와 같은 위험한 계엄을 극복하기 위한 주술이다. 문두루의 규모는 縱廣七七分 즉, 가로와 세로를 49분(分)으로 하라고 하였으며, 재료는 금과 은과 진보(珍寶)가 가장 좋고 다음이 진단목(梅檀木) 혹은 은갖 잡향(雜香)이라 하였다. 배치는 제사를 지내는 방에 5방의 위치에 문두루를 배치하고 제앙이 오는 방향으로 인(印)을 행하는 제사를 지낸다.

최윤옥 譯, 한글대장경 관정경(灌頂經), 동국역경원, 2002



제3단의 사천왕단으로 국토를 수호하는 방법으로 문두루법을 시행하였을 것이다¹¹⁾. 이 해석을 따라 사천왕사를 분석해 보면 비단으로 절을 만들었다 함은 사찰의 경계 즉 회랑을 의미하는데 여러 가지 색의 의미는 각 방위별의 색을 의미한다. 비단으로 사찰의 경계를 만든 다음 5방신을 폴로 만들어 문두루의 1단인 5방신단을 만든다. 『불설관정복마봉인대신주경(佛說灌頂伏魔封印大神呪經)』에서는 부처가 5방신을 만든 후 제석천에게 종광칠칠분(縱廣七七分)하여 문두루형(文豆婁形)을 만드는데 이것이 2단인 칠신단의 모습이다. 그 후 3단인 사천왕이 이 사택¹²⁾의 화를 보호하고 있다. 바로 현재의 사천왕사는 앞의 관정경의 해석 순에 따라 사찰을 지어 나라를 보호하던 것이다.¹³⁾



<그림 8> 사천왕사 사천왕상 조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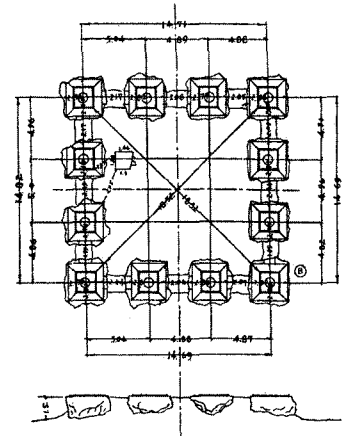
3.2. 추정 제단지의 용도

현재의 경루지라고 알려진 금당 북쪽의 두 건물지는 1922년 총독부에서 보고된 고적조사보고에서는 탑지(塔址)라고 보고되었으나, 1930년의 藤島亥治郎박사의 주장은 삼국유사의 문헌적 고찰을 통하여 경루지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후 다른 기능을 가진 용도의 건물지란 주장이 나오게 된다. 이는 두 편의 논문¹⁴⁾을 통하여 장충식(張忠植)박사가 주장한 것으로, 그는 삼국유사에 나오는 사천왕사에서 행하여진 문두루법에 의한 제단이라고 주장하였다. 그것은 삼국유사 문호왕법민조에 나오는 “지금부추단석(至今不墜壇席)”의 내용으로부터 기인되었다.

11)허일범, 한국밀교의 특성과 만다라-회당사상과 밀교, 당회논문집, 2002, p.245
 12)문두루를 행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집안의 화를 막는데 쓰인 밀교수술 방법이다. 여기서의 사택(舍宅)은 집을 의미하지만 사천왕사에서의 사택은 신라를 의미할 것이다.
 13)김상태·박인근, 四天王寺의 密敎의 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계획계), v.20 n.4(2004-04), 2004, pp.151-158
 14)장충식, 新羅 狼山遺蹟의 諸問題, 新羅文化祭學術發表會 論文集 제17집, 1996, pp.15~36
 장충식, 新羅 四天王寺址 檀席의 考察, 佛敎學報 제39집,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2002, pp.7~23

여기에서 단석(檀席)의 개념과 그 적용이 어떻게 되었을까하는 문제제기부터 시작되었다. 또한 경루지를 최초로 주장한 藤島亥治郎박사 자신 또한 경루지의 유구내용이나 전래에 대하여서는 알 수 없다고 하며 막연한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가 추정배치도를 주장한 조선 건축사론에서 “금당 북쪽에 대립한 두 유적지(二址)를 좌경루 및 우경루라 함은 필자가 효실(曠失)이다. 재래(在來), 이 두 유적지(二址)에 무슨 유물이 있었는지에 대하여서는 정설(定設)이 없다.”고 하였다.¹⁵⁾ 이는 추정복원도를 작성한 본인도 경루지에 대한 확실한 주장을 회피한 것이었다. 그러나 후학들은 이러한 불확실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경루지라고 인식하여 인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추정 경루지의 용도를 삼국유사의 ‘至今不墜壇席’의 원문에 근거하여 추정 제단지로 규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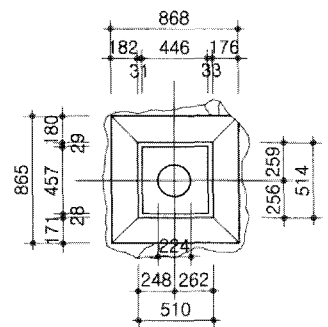


假想北平面圖

<그림 9> 사천왕사 동북 추정경루지 평면도 - 1929년 藤島亥治郎

3.3. 문두루도형과 원공(圓孔)

사천왕사 추정제단지의 초석은 다른 유적에서 볼 수 없는 형태인데, 그림과 같이 사방 약 80cm 규모이고 그 안에는 정사각형의 윗면 약 45cm의 폭으로 이루어져 있다. 초석의 윗면과 바깥 면에 이르기 까지 각각의 모서리가 물덩(隅棟:내림마루)으로 연결되어 있어, 매우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각형의 기둥을 받치고 있는 형태로 되어 있고, 그 중심에는 직경 22cm, 깊이 22cm 규모의 원형구멍(圓孔)이 있어 기둥의 축을 끼워 넣는 역할을 하였다고 알려져 있다. 이러한 정사각형의 주좌(柱座)는 장충식박사에 의하여 다른 기능의 초석으로 주장되었는데, 관정경의 문두루법에서 나타난 오방신의 이름을 새긴 문두루도형이 세워진 초석이라고 하였다. 그 크기는 칠칠



<그림 10> 추정 제단지 동북모서리 초석 실측도 - 2004년 연구자 실측

15)藤島亥治郎, 朝鮮建築史論, 경인문화사, 1973, p.59

푼(七七分) 즉, 49푼(分)¹⁶⁾으로 약 148cm¹⁷⁾로 보아 이 원목을 원공(圓孔)에 꽂아 밀교적 의례를 행하였던 것으로 보았다. 유지(遺址) 한쪽의 12개의 초석으로 총 24개의 초석이 존재하는데, 12의 의미는 문호왕법민조에 나오는 12명의 유가승과 함께 12지신을 적용하여 설명하였다.

그러나 여기에서 추정경루지의 초석이 일반적인 초석과 달라 문두루도형을 끼우기 위한 초석이었다는 점은 동의하지만, 그 규모에 있어서는 이의(異意)를 제기 할 수 있다. 그것은 우선 관정경에 나오는 문두루도형의 규모에 있어서 칠칠푼(七七分)의 규모문제인데, 종과 횡의 개념을 모두 148cm의 규모로 한다면 그 규모는 148cm×148cm로 약 80cm의 초석이 받을 수 있는 규모는 아니다. 그리고 초석과 초석의 간격이 보통 150cm¹⁸⁾로 문두루도형의 규모와 간섭이 일어나므로 오히려 김상현 박사가 주장한 7푼×7푼, 즉 20.8cm×20.8cm의 해석이 옳은 산정법이다.¹⁹⁾

그러나 여기서 척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 기본적으로 고대건축 혹은 이후의 전통건축에서 사용된 척도는 자(尺), 촌(寸, 0.1尺), 푼(分, 0.01尺)으로 구분되어 사용된다.²⁰⁾ 문두루의 크기는 종광칠칠푼(縱廣七七分)으로 상기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7푼×7푼=49푼의 산정방법과 높이7푼+넓이7푼의 해석으로 나누어지고 있다. 만약 푼의 치수가 0.1척일 경우²¹⁾에 가로7푼+세로7푼의 해석이 타당하지만, 푼의 치수가 0.01척일 경우 7푼×7푼=49푼의 해석이 타당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한글대장경의 해석인 7푼×7푼=49푼의 해석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²²⁾ 이는 푼이 표기된 대장경의 시기가 푼이 0.01척으로 사용된 시기이고, 49푼의 크기가 당척으로 할 경우 49×29.7×0.01=14.553cm이기 때문이다.²³⁾ 원공의 크기가 연구자의 실측에 의하면 가로

16) 불교사학자인 김상현박사는 四天王寺의 創建과 意義, 新羅의 狼山, 新羅文化祭學術發表論文 제17집, 1996년, p.138.의 논문에서 높이7푼, 넓이7푼으로 해석하여 주장하였다. 한글대장경에서는 7×7=49분의 산정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3.1절 (2)의 관정경해석 참조.
 17) 1척을 30cm로 보았을 경우이다. 시기에 따라 동이척, 당척 등으로 사용되었을 것이다. 기존의 연구는 사천왕사의 척도를 당척으로 하였다.
 18) 2004년 본 연구자의 실측에 의하면, 추정제단지의 초석과 초석사이의 거리가 최소 143.5cm로 장충식박사가 주장한 148cm의 문두루도형보다 작은 경우도 있다.
 19) 현실적으로 문두루 나무를 147cm를 만들어 문두루법을 하였을 경우, 집에서 행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문두루법이 보통 집에서 귀신을 쫓는 방법이므로 21cm의 크기가 보다 설득력이 있다.
 20) 고대건축에서 자와 촌의 사용은 명백하지만, 푼의 사용은 그 사용을 찾아보기 힘들다. 주로 근대 일본의 건축척도로 많이 사용한 푼은 본 연구에서 사용한 경전의 원문이 근대 일본에서 재 집대성한 신수대장경임을 볼 때, 푼의 치수를 0.01尺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1) 장충식박사는 1푼을 0.1자(尺)로 계산하였다. 그러나 김상현박사는 높이 7푼, 넓이7푼으로만 해석하여 현대식 미터법으로는 환산하지 않았다.
 22) 결과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높이 49푼, 넓이 49푼의 크기를 가진 문두루도형이라고 해석하고자 한다.
 23) 49푼의 크기가 당척으로 할 경우 49×29.7×0.01=14.553cm이다. 만약 크기가 큰 당척으로 높이7푼+넓이7푼으로 해석할 경우 7×29.7×0.01=2.079cm

와 세로가 22cm 전후이므로<그림 10 참조>, 14.553cm 크기인 문두루도형을 원공에 보관하기 적당한 크기이다. 신라의 통일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문두루도형을 보관할 때 그 도형을 보호하는 보관함을 만들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원공의 22cm크기는 문두루도형과 보관함의 크기에 충분히 가능한 크기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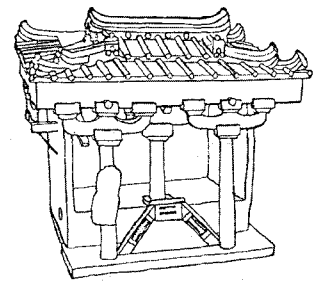
원공의 목적에 있어서 두 가지의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데, 그 하나는 문두루도형을 넣기 위해 만들었을 가능성과 또는 기둥을 세우기 위한 보조도구(觸)를 세우기 위한 목적에 대한 것이다. 기둥을 세우기 위한 촉(觸)의 경우 탑지(塔址)와 비교를 할 수 있는데, 구조적으로 매우 복잡하고 상부의 하중이 크게 작용하는 탑지에서 초석 원공이 없다는 점은 건물을 세우기 위한 기둥의 촉(觸)을 끼기 위한 시설이란 것을 입증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추정경루지에서의 초석은 다른 목적에 의한 초석일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²⁴⁾

4. 추정 제단지 초석의 장식과 의미

4.1. 초석의 처마마루장식

(1) 고대건축에서 표현된 처마마루 장식

고대건축에서 처마마루는 한나라의 목조건축이 한반도에 전래되면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목조가구법이 발달하면서 지붕재료인 기와가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그 결과 용마루, 내림마루, 처마마루가 생기게 되었다. 수기



<그림 11> 한나라 가형토기에 나타난 목구조와 기와

와를 올려서 만든 마루들의 흔적은 고대 가형토기와 고구려 벽화고분의 벽화, 그리고 사찰의 석탑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²⁵⁾

고대의 가형토기와 벽화고분에서의 건축표현은 내세에서의 영원한 삶을 위해 만든 작품으로, 당시의 건축모습을 알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단서이다. 석탑에 표현된 목조건축은 중국에서 시작된 초기의 탑이 목조탑으로 시작되었지만, 한반도로 전래되면서 석탑으로 발전하는 과정 중 보이는 석탑화의 표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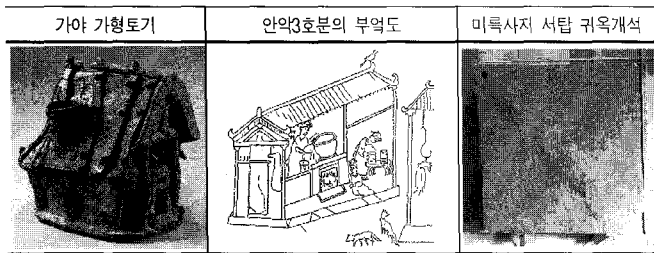
이므로 너무 작은 크기가 된다. 높이2cm×넓이2cm의 문두루도형을 보관하기에는 원공의 크기가 너무 크다.

24) 김상태, 新羅時代 伽藍의 構成原理와 密敎的 相關關係 研究, 홍익대학교 박사논문, 2004, pp.156-159

25) 목조건축의 한계인 재료의 시간적 제약, 화재, 그리고 곤충의 피해로 인하여 주로 고분이나 토기, 석재 등에 표현된 목조건축의 조각에서 그 흔적을 찾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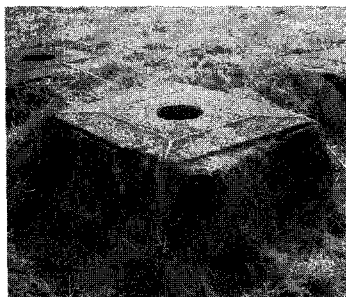
이러한 석탑의 목조탑표현 기법은 주로 백제가 이용한 수법으로 남중국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는 추측을 하고 있다.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면서 신라가 가지고 있던 북중국의 전탑형식을 벗어 버리고 석탑의 형식으로 변화되었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백제의 목구조표현 형식과 신라의 전탑형식이 혼합되었다. 즉 부분적인 목구조 형식의 돌음조각(陽刻)을 통해 목구조를 표현하였다. 이후 8세기 중엽부터 탑 전체는 간략화된 구조를 보이고 있으며, 동시에 탑 표면에 건축구조와 불상조각 등이 나타나는 변화된 모습으로 발전하였다.

<표 6> 고대 건축에서 표현된 추녀마루의 모습



(2) 사천왕사 추정 제단지 초석의 처마마루 장식

추정 제단지의 초석은 정방형의 석재로, 상부는 지붕형태의 처마마루 쇠시리장식을 하였으며, 정방형의 50cm×50cm 규모의 주좌는 기둥을 받쳤던 흔적이 있다. 초석의 최외곽 모서리와 주좌모서리를 각각 연결하는 추녀마루 모습의 쇠시리는 마치 지붕의 모습을 연상시키게 한다. 주좌의 모서리로부터 시작된 추녀마루 쇠시리는 주좌에서 초석모서리까지의 높이차이가 당척 0.15척(약 4.46cm)²⁶⁾로 약간의 경사를 이루면서 전체적으로 우진각지붕의 모습을 하고 있다. 마치 미륵사지석탑과 정림사지 5층석탑과 같은 백제 건축의 석탑에서 보여주고 있는 추녀마루의 모습과 같다.<표 6 참조> 이러한 이형(異形)의 초석 모습은 사천왕사에서만 볼 수 있는 것으로 사천왕사 이전, 그리고 이후의 어느 사찰에서도 발견되지 않는다.



<그림 12> 추정 제단지 북동 모서리초석의 추녀마루 쇠시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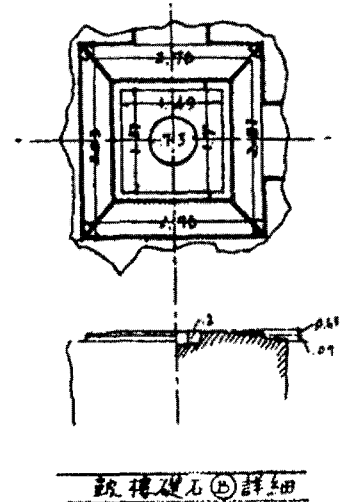
4.2. 사천왕사 초석의 장식미

추정제단지의 초석에서 보이는 추녀마루의 조각과 쇠시리, 지붕의 모습의 장식화는 사천왕사만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 있음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²⁷⁾ 사천왕사와 동시대 혹은 그 이

26)1929년 후지시마(藤島亥治郎) 박사의 조사는 사천왕사의 기준척도를 당척(唐尺)으로 측정하였다.

전의 건축에서 보여주고 있는 탑과 누정건축의 초석에서는 주로 인조초석 중 장식이 없고 윗면이 평평한 방형의 초석을 사용했다.²⁸⁾

추정제단지의 추녀마루 조각은 지붕을 의미한다. 탑이나 석등, 부도의 옥개석은 지붕의 역할을 담당하며, 그 아래 면석은 건축물의 실내공간을 의미한다. 사천왕사의 추정제단지 초석도 마찬가지로 초석의 상부



<그림 13> 사천왕사 추정제단지 초석 상세도 - 1929년 藤島亥治郎

는 경사진 추녀마루와 주좌로 지붕의 형상을 만들고, 그 내부는 원공으로 하여 원공에 들어가는 문두루도형을 보호하는 모습을 취하고 있다. 문두루도형을 보관함에 보호하여 원공에 넣고 그 위에 사각의 기둥을 올려놓음으로 사천왕사의 가장 중요한 제사품인 문두루를 보호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보관방법은 같은 사천왕사의 탑지의 심초석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표 3 참조>²⁹⁾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은 다른 탑지의 사리공은 보통 하나이지만 사천왕사 추정제단지는 동12개, 서12개로 총 24개의 원공이 발견된다. 이는 문두루제사를 지낼시 문두루의 총 개수를 의미한다.

초석과 초석사이를 연결하는 고맥이는 기둥과 기둥의 하단을 연결하는 하방을 받치는 부재이다. 하방이 있다는 의미는 하방위에 벽체를 두었음을 의미한다. 즉 사천왕사의 추정 제단지는 기둥만 노출된 누정형식이 아닌 벽체가 있는 건물을 말하고 있다.³⁰⁾ 본 연구자가 2004년 실측<그림 7의 도면 참조>에 의하면 기둥과 기둥사이의 폭은 약 100cm(1M)의 폭³¹⁾을 가진다. 정방형의 건물³²⁾이 기둥사이가 1M의 폭을 가졌고, 1층이 누정 구조(樓構造)가 아니고 벽체가 있었다는 것은 그 건물이 보호 각이었음을 증명하는 객관적 사실이다.

27)추정 제단지에 대한 일반적인 고대 사찰의 건축물이었던 탑지, 경루지, 종루지의 주장은 초석의 추녀마루 쇠시리와 더불어 고맥이의 흔적으로 재고할 여지가 있다.
 28)그 이유는 탑과 누정건축의 외주는 주로 사각기둥을 많이 사용했고, 원기둥은 주로 금당에 사용했기 때문이다.
 29)심초석의 사리공에 사리함을 넣고 그 위에 심주(탑 중심에 위치한 거대한 중심기둥)를 세워 사리를 보관하였다.
 30)고대의 경우는 누정형식이 아닌 1층이 모두 벽체로 구성된 경우도 있다. 종루는 8세기 이후에 발생하므로 시기적 문제가 제기된다.
 31)기둥과 기둥사이의 중심 거리는 평균150cm 전후이고, 사각기둥의 폭이 평균 50cm 전후로 기둥과 기둥사이의 공간 폭은 약 100cm이다.
 32)이전의 실측자료와 연구자의 실측자료를 검토하여 보면 건물지의 폭이 전면 450cm, 측면 450cm로 약 4.5M의 정방형건물임을 알 수 있다.

<표 7> 추정제단지에 나타난 장식에 따른 건축사례

장식	건축 사례		
	금산사 미륵전	돈황석굴 제85굴 경루	백장암3층석탑
추녀마루장식			
원공과심주			
고택이와전각			

이상 사천왕사 초석에서 보여주고 있는 추녀마루의 쇠시리 장식과 원공에 대한 본 연구는 기존의 경루지, 혹은 종루지의 주장보다 구체화되고, 진보된 주장으로 사천왕사 초석이 밀교적 의례를 통한 제단(祭壇)의 일부 유적(遺蹟)이라 사료된다. 비록 그 이용이 문두루도형이 아닐지라도 제사에 필요한 기능을 제공한다 할 수 있고, 다른 사찰에서 보이지 않은 배치를 보인 것 또한 이러한 특수한 경우에 적용되었을 것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한다. 사천왕사는 신라의 주권회복에 가장 큰 역할을 한 사찰로 고려에서도 전쟁 시 밀교의 문두루도법을 시행하기 위한 제단건축으로 보아함이 맞을 것이다. 나라가 어지러울 때 항상 오방신이 나타났다는 삼국유사의 기록³³⁾과 월명사와 관련된 감통(感通)의 기록³⁴⁾ 또한 이러한 사천왕사의 밀교적 제단의 기능을 입증하는 사례이다.

5. 결론

이상의 연구를 통해서 사천왕사 초석의 장식에 대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정의할 수 있다.

첫째, 사천왕사 금당북쪽에 위치한 건물지는 전쟁시 행해진 문두루도량을 위한 시설로 문헌의 단석(壇席, 제단지) 표현과 함께 다른 건물지 초석과 형태와 장식이 확연히 구별되므로, 제사를 지내기 위한 제단지로 추정한다.

둘째, 사천왕사 추정제단지의 추녀마루 조각장식은 초석으로

는 사천왕사에서만 유일하게 나타나며, 이는 8세기 이후에 나타나는 석탑의 추녀마루조각(우동)과 같은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 석탑이 사리를 보호하는 기능을 가지듯이 추정제단지의 초석 또한 문두루도형을 보호하기 위한 부재로 보아야 한다.

셋째, 사천왕사 추정제단지의 원공 규모를 볼 때 관정경의 본문을 통해 나타난 종광77분의 문두루도형 크기는 높이가 49푼, 넓이가 49푼의 크기이며, 이를 미터법으로 환산하면 14.55cm이다. 이는 사리를 보호하는 사리함이 있듯이, 문두루도형에도 보관함이 있음을 추정할 수 있고, 이러한 추정을 기준으로 할 때 49푼이 가장 적절한 규모의 산정법이다.

넷째, 초석의 고택이 장식은 기둥과 기둥사이에 벽체가 있음을 증명하는 장식이므로, 사천왕사의 추정제단지는 1층이 벽체가 있는 정방형 평면으로 폭이 약 4.5M 규모의 건축물임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1. 최윤옥 譯, 한글대장경 관정경(灌頂經), 동국역경원, 2002
2. 담무참, 한글대장경 금광명경(金光明經), 동국역경원, 2002
3. 박언곤, 한국건축사 강론, 문운당, 1998
4. 김동욱, 한국건축의 역사, 기문당, 1997
5. 김동현, 한국목조 건축의 기법, 발언, 1995
6. 이민수, 세계의 사상 1: 삼국유사, 을유문화사, 1994
7. 藤島亥治郎, 朝鮮建築史論, 경인문화사, 1973
8. 朝鮮總督府, 大正十一年度古蹟調査報告, 京都 似玉堂, 1925
9. 김상태, 新羅時代 伽藍의 構成原理와 密敎의 相關關係研, 홍익대학교 박사논문, 2004
10. 김상태·박언곤, 四天王寺의 密敎의 特性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계획계), v.20 n.4(2004-04), 2004
11. 장충식, 新羅 四天王寺址 檀席의 考察, 佛敎學報 제39집,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2002
12. 허일범, 한국밀교의 특성과 만다라, 당회논문집, 2002
13. 김상현, 四天王寺의 創建과 意義, 新羅의 狼山, 新羅文化祭學術發表論文集 제17집, 1996
14. 장충식, 新羅 狼山遺蹟의 諸問題, 新羅文化祭學術發表會 論文集 제17집, 1996

<접수 : 2006. 12. 31>

33) 문헌에 의하면 사천왕사는 고려때 몽고침입시까지 전쟁시에는 항상 문두루도량을 열어 전쟁을 이기기 위한 제사를 지냈다고 서술되어있다.
34) 삼국유사 제5권 감통(感通) 제7 월명사(月明師) 도솔가(兜率歌)